
제6차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[2025~2027]

2024. 12.



관계부처 합동



목 차



I. 배경 및 추진경과	1
II. 제5차 종합계획 평가	3
1. 주요 성과	3
2. 한계 및 시사점	5
III. 추진 여건 분석	6
1. 국내 식생활 환경	6
2. 국제 동향	8
IV. 추진 체계	9
V. 세부 추진계획	10
1. 안전한 식생활이 보장되는 환경	10
2. 성장 여건을 반영한 교육	16
3.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제공	19
4. 맞춤형 영양성분 서비스 확대	22
VI. 추진일정	24

I

배경 및 추진경과

□ 추진 배경

-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해 「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」 수립
- * '10년부터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6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

제26조(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 및 영양관리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

□ 그간 연혁

- '08 - '09 • '08
 -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정('08)·시행('09)
 -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, 어린이기호식품 지정,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 고저식품 판매 금지 등
- '10 - '12 • '10
 -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
 -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영양표시 의무화
- '13 - '15 • '13
 - 고카페인 함유 식품 우수판매업소 판매 제한, 방송광고 일부 제한·금지
- '16 - '18 • '16
 - 알레르기 표시 의무화,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
 - 학원가 등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운영
- '18 • '18
 - 커피 등 모든 고카페인 함유 식품 학교 내 판매금지
- '19 - '21 • '19
 - UN만성질환예방관리특별위원회상 수상
- '20 • '20
 - 지자체 센터 설치 및 영양사 없는 급식소 등록 의무화
- '21 • '21
 - 가맹점 50개 이상 프랜차이즈 영양표시 의무화
- '22 - '24 • '22
 -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전국 설치 완료
- '23 • '23
 - 방송광고 제한 매체 확대(IPTV 추가)



□ 제6차 종합계획 수립 경과

○ (식생활 안전지수) 식생활분야(안전·영양·인지실천) 조사·발표('24.9)

√ 식생활 안전지수: '20년 대비 '23년 2.1점 상승(70.3 → 72.4)

▶ 안전분야 34.6점(1.1 ↑), 영양분야 24.1점(1.2 ↑), 인지·실천분야 13.7점(0.2 ↓)

* 패스트푸드, 단맛음료 등 섭취 증가로 '인지·실천분야' 소폭 하락

▶ 도시지역 대폭 상승(대도시 3.0점 ↑, 중소도시 3.3점 ↑), 농어촌 소폭 상승(1.9점 ↑)

* 농어촌은 도시지역에 비해 비만율, 식생활 교육·홍보가 미흡

○ (의견수렴) 업계·학계·소비자단체 의견 청취('24.3~9)

▶ 산업계: 품질인증 활성화, 고열량·저영양식품(고·저식품) 광고 규제완화 요구

▶ 학계: 기호식품확대(치킨·떡볶이 등), 고·저식품 규제는 어린이 식생활 관리를 위해 필요

▶ 소비자 단체: 어린이용 온라인 매체 방송 광고 규제 강화 필요

○ (관계부처) 관계부처별* 어린이 식생활 정책 계획 조사('24.7~8)

* 보건복지부, 교육부, 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

○ (대국민 설문) 학부모, 초·중·고 학생 대상 설문('24.10~11)

▶ 조리·판매업소의 위생관리 강화 요구

▶ 양질의 식품 공급 확대 방안 요청

▶ 인플루언서 협업 식생활 홍보 필요

○ (전문가 자문)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심의('24.11.26.)

▶ 어린이식품안전관리구역을 학원가, 놀이공원까지 확대 필요

▶ 고·저식품의 SNS광고 시범사업은 산업계와 의견수렴을 통해 확대 필요

▶ 교과과정과 연계한 수준별 영양·식생활 교육 방법 다양화 필요

▶ AI기반 영양성분 활용 시스템 구축 필요

▶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확대 필요

▶ 나트륨·당류 저감 표시 대상 확대 필요

▶ 고카페인 식품 저감을 위한 정보 제공 확대 지속 추진 필요

▶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·혜택 확대 필요

1

주요 추진성과

- ✓ 어린이 식생활 안전·영양 수준 2.1점 향상
- ✓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100% 완료
- ✓ 범부처 통합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

□ 어린이의 활동공간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

- 학원가·놀이공원 등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시범구역 확대 및 무인점포 등 신규 영업형태 포함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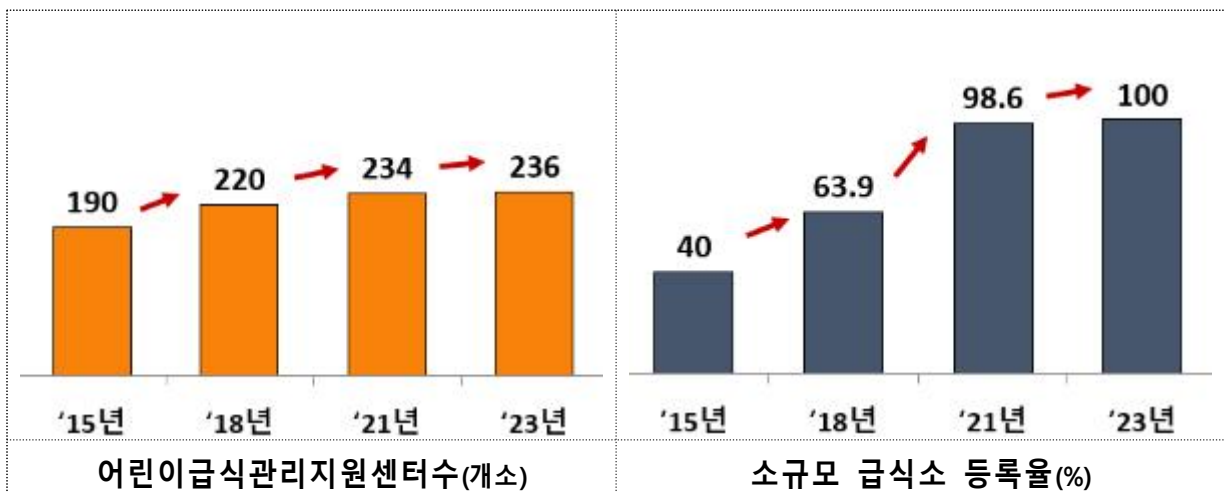
- * 학원가 등 시범구역(개소): ('22) 170 → ('23) 180
- * 학교·학원가 주변 점검(개소): ('22) 261,074 → ('23) 285,183
- * 무인점포 점검(개소): ('22) 2,386 → ('23) 2,752

- 편의점 건강먹거리 코너 시범사업 및 자율영양 표시 확대로 영양을 갖춘 식품을 쉽게 선택하는 환경 조성

- * 건강먹거리 코너(개소): ('22) 102 → ('23) 158 → ('24) 167
- * 자율영양 표시업소(개소): ('20) 14,725 → ('21) 25,654 → ('23) 35,403

□ 전국 지자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완료

-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 등록 의무화로 급식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



□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어린이 식생활 교육 제공

- 초·중·고 대상 식품안전·영양 교육교재·교구 개발 및 고등 교과 인정·승인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식생활 실천 교육 지원

* ('23) 당류 저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, ('24) 3,800명 시범교육

- 어린이의 체험형 교육 지원 강화로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

- 유치원·어린이집·초등학교로 찾아가는 튼튼먹거리 탐험대* 운영을 통한 '저당, 저염' 실천 교육 및 저감 레시피 조리실습 지원

* ('21) 762회, 12,300명 → ('22) 791회, 15,437명 → ('23) 1,001회, 20,601명

- 수산물 활용 요리교실과 농촌체험·농산물 활용한 미각교육 실시

* 수산물 요리교실: ('21) 125개소, 5,624명 → ('23) 226개소, 7,000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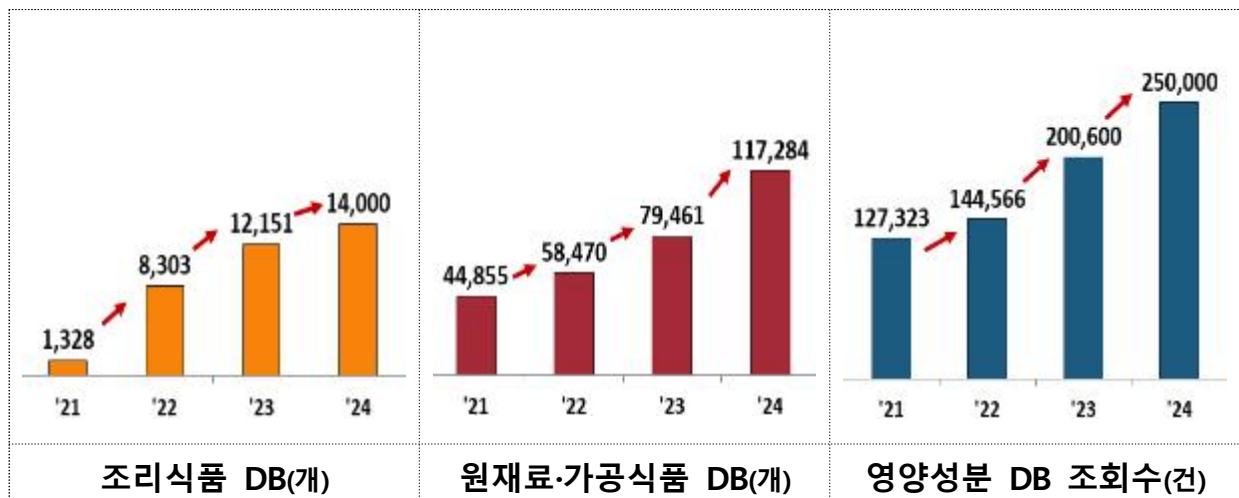
* 농촌체험 활용한 텃밭·미각교육: ('21) 83,839명 → ('23) 87,704명

□ 식품 영양정보 디지털 수집·관리 체계 구축

-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제공을 위한 범부처 영양성분 DB 통합

- 부처별 산재*된 영양성분 DB를 표준화하여 통합 및 「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누리집」을 개편하여 영양성분 정보 제공

* 농산물 원료(농림부), 수산물 원료(해수부), 조리·가공식품(식약처) 정보



- (환경변화) 어린이 식생활 환경변화에 대응한 제도 재정비 필요
 - (보호구역) 어린이가 실제 활동하는 학원가, 놀이시설 등 미지정
 - (기호식품) 유행에 따른 소비 급증 식품의 신속한 관리체계 부재
 - * ‘어린이 기호식품’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어 개정 전까지 관리 사각지대

⇒ 생활환경 변화에 맞게 신속히 기호식품으로 관리하는 체계 마련
- (자율참여) 건강한 식품의 제조·판매·소비 유도
 - (우수판매업소*) 판매 품목제한으로 경쟁 편의점에 밀려 지속 감소
 - * 고카페인, 고열량·저영양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지자체에서 지정
 - * 우수판매업소 현황(개소): ('21) 1,806 → ('22) 1,621 → ('23) 1,444
 - (품질인증) ‘안전’과 ‘영양’을 모두 충족해서 인증 받는 ‘품질인증’ 제품은 까다로운 요건 대비 부여하는 혜택이 없어 인증 저조
 - * 제도 시행 이후 16년 동안 ‘품질인증’ 540개 식품 지정(전체 대상식품 11만개)

⇒ 건강한 식품을 쉽게 구입·섭취할 수 있도록 제도방향 전환
- (교육기회) 식생활 개선을 위한 기회 제공 필요
 - 지역별 식생활 교육 기회 차이에 따른 비만 유병률 및 영양 격차 발생 등 건강·사회 취약계층 대상 식생활 정보 제공 한계

⇒ 취약계층 대상 식생활 교육 기회 확대 및 접근성 개선
- (데이터) 영양성분 데이터 확보, 활용 등 개선 필요
 - 꾸준한 영양성분 DB 수집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분이 수집되어 있지 않으면 영양정보의 가치 하락으로 사용자의 활용에 한계
 - * 의무 표시 영양성분 9종(단백질, 탄수화물 등) 중 1개라도 누락시 활용도 낮아짐

⇒ 영양성분 DB 관리체계 개선 및 활용가능한 서비스 제공 방법 모색

Ⅲ

추진 여건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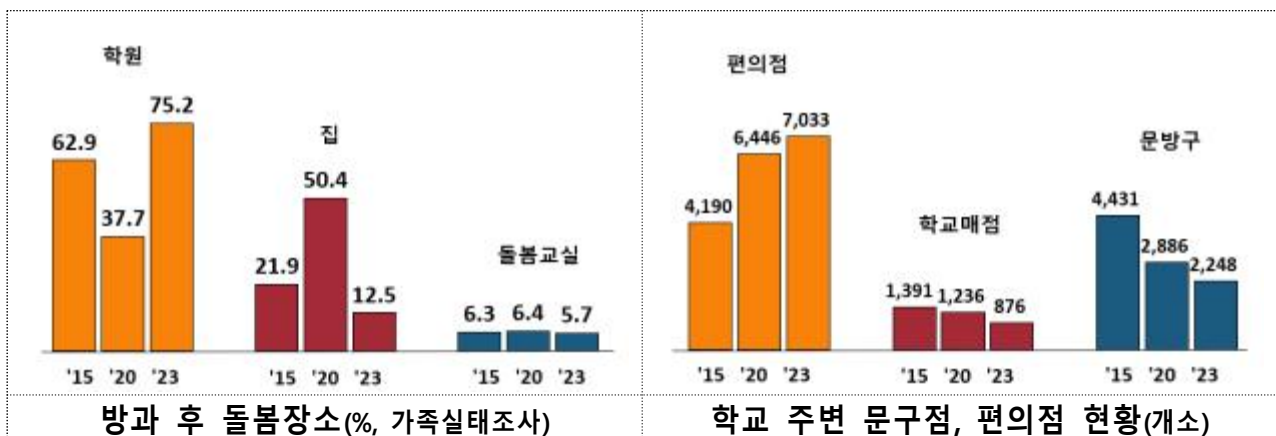
1

국내 식생활 환경

□ (활동공간) 방과 후 학원으로 이동하고, 편의점 등 이용 증가

- 초등학생 대부분은 방과 후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고, 학교 주변에서 학교 매점·문구점 등은 감소하나, 편의점은 증가하는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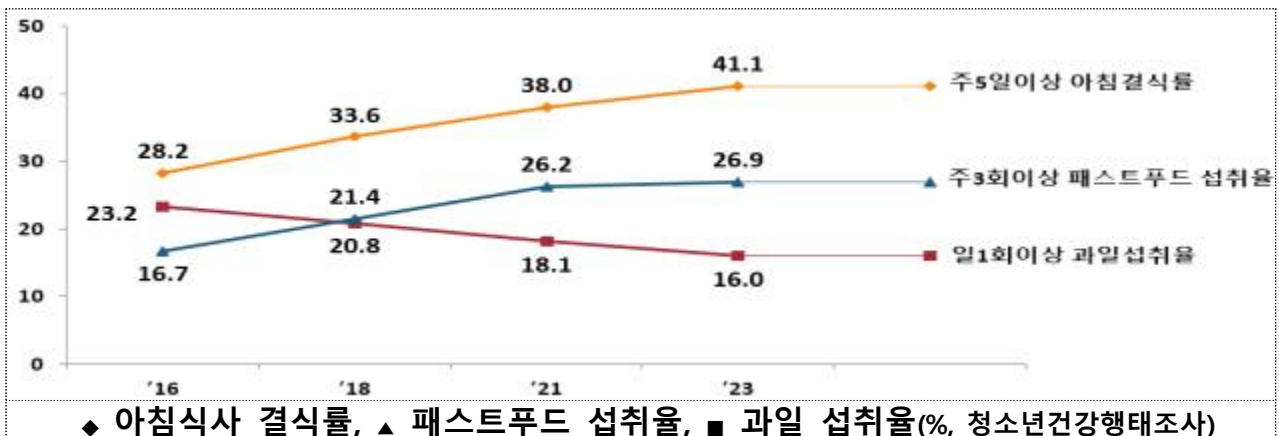
* 초등5 식품 소비 장소: 편의점 31%, 마트 22%, 무인점포 18%('23 기초행태조사)



□ (건강지표) 아침결식률은 증가, 건강한 식생활 실천 노력 감소

- 청소년 아침 결식률은 지속 증가하고, 과일·채소 섭취는 부족, 패스트푸드 섭취 증가, 당류 섭취는 일부 연령에서 권고 기준 초과

* 국민 당류 섭취량은 WHO 하루 권고기준(10%)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, 6~11세 여아 10.3%, 12~18세 여아 10.9%로 권고기준 초과



□ (급식시장) 저출산에 따른 급식제공시설의 소규모화, 다양화

-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,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는 새로운 돌봄 수요로 인해 급식제공시설의 소규모화 추세
- 어린이집·학교 외에도 영어학원, 공부방 등 급식 제공시설 다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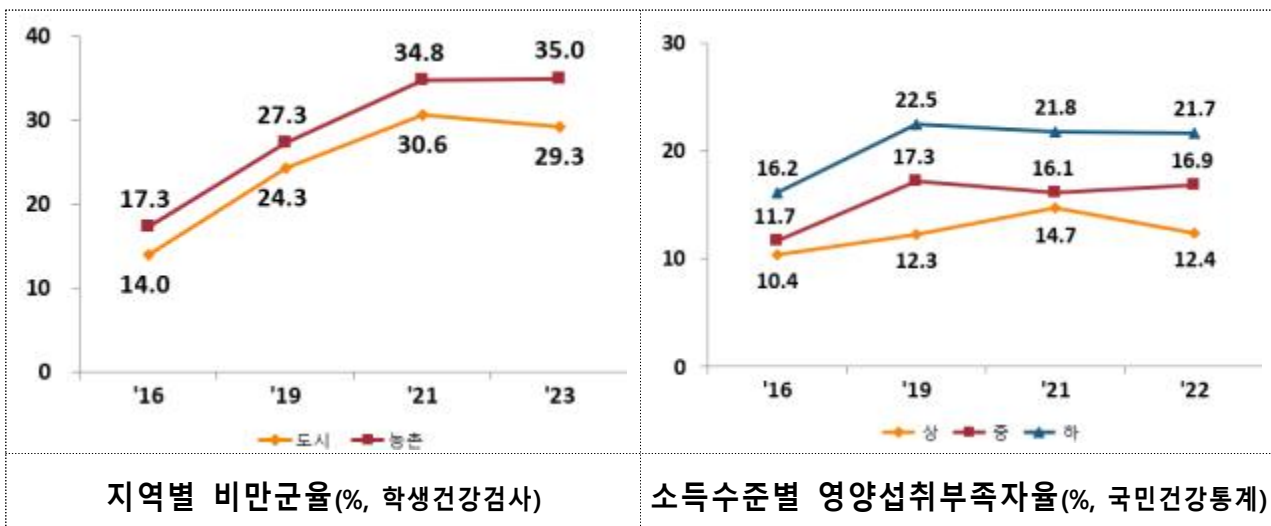
□ (사회 격차) 지역·소득 차이에 따른 영양 수준 격차 지속

- 농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비만 유병율은 높고, 식생활 교육·홍보는 낮은 경향

* 초등학생 지역별 비만균(과체중+비만)(%, '23): (도시) 29.3, (읍·면) 35.0

- 경제 취약계층의 경우 영양섭취(열량, 칼슘 등) 수준 낮음

* 소득수준별 영양섭취부족자율(%, '22): 상 12.4, 중 16.9, 하 21.7



□ (정책지원)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 지원 지속 확대

○ 국가의 직접적 규제보다는 지원 및 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한 개선

- ▶ (미국) 건강한 식품 지원 확대, 식품 정보 이해도 개선, 영양 연구 강화 추진
- ▶ (WHO) 식생활 개선 거버넌스 구축, 국민의 건강정보 이해 수준 향상 필요

□ (방송규제) 비만 예방을 위한 고열량식품 광고 규제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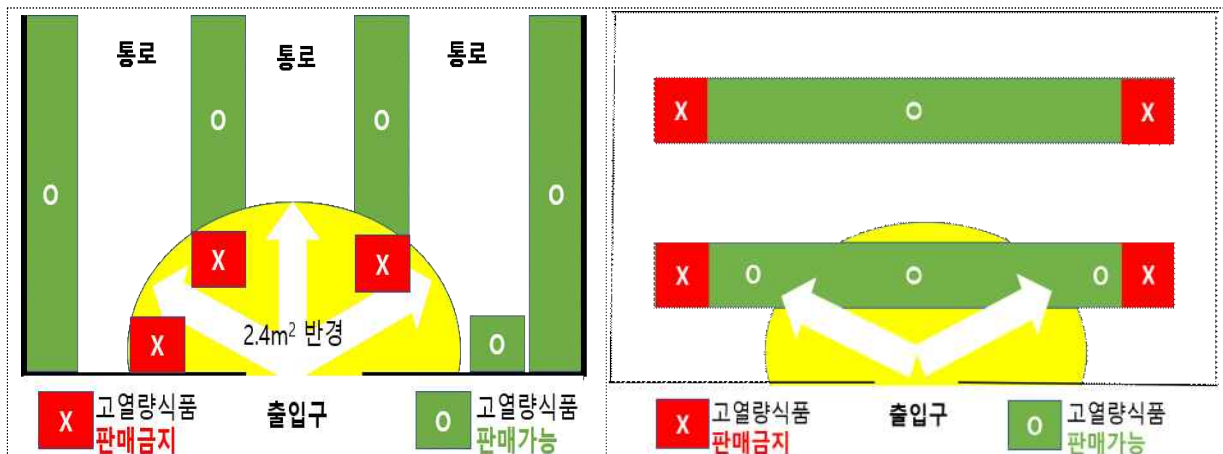
○ 어린이 식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환경 개선

- ▶ (영국) 어린이 프로그램(16세 미만) → TV 광고 금지
어린이 미디어(웹, 앱 등) 광고 금지
→ 모든 온라인 광고로 확대 시행 예정('25.10~)
- ▶ (캐나다) 어린이(13세 미만) 대상 광고의 산업체 '자율 금지 규범' 시행('18~)
→ TV·디지털 매체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 마련중('24.12~)
- ▶ (독일) 어린이(14세 미만) 대상 TV, 인터넷, 라디오 광고 및 인플루언서를 통한 마케팅 제한 법안 발표('23~)

□ (구매여건) 건강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

○ 건강한 식품과 건강을 해치는 식품을 구분하여 판매하는 경향

- ▶ (미국) 건강한 식품을 일반제품과 구분 판매하는 경우 정부 지원금 지원('10~)
- ▶ (영국) 매장 입구, 계산대 앞, 복도 끝에 고열량 식품 진열 금지('22.10~)



IV

추진 체계

1

비전 및 추진전략

□ (기본방향) 성장(G.R.O.W.)하는 어린이에게 맞는 식생활 환경 조성

“G” G ood dietary environment	“R” R eflective education	“O” O ffering safe meals	“W” W idening nutrition service
안전한 식생활이 보장되는 환경	성장 여건을 반영한 교육	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제공	맞춤형 영양성분 서비스 확대

□ (체계도)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 전략

비전	올바른 식생활로 어린이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회	
추진 방향	▶ 안전한 식생활 환경이 더 넓어지는 체계 구축 ▶ 건강한 성장을 돕는 활기찬 교육 프로그램 제공 ▶ 모든 급식소에서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 섭취 ▶ 효율적 영양성분 수집·생산·검증 및 활용	
	추진전략	추진과제
G	안전한 식생활이 보장되는 환경 G ood dietary environment	.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체계 정비 . 어린이 맞춤형 식생활 정보 제공 확대 . 식생활 개선 수준 정밀 진단 체계 마련
R	성장 여건을 반영한 교육 R eflective education	. 발달 단계별 맞춤형 교육 제공 . 영양취약계층 식생활 프로그램 확대 . 흥미를 더한 식생활 체험 활동 지원
O	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제공 O ffering safe meals	. AI 기반 어린이 급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. 식중독 등 급식사고 예방 및 확산 방지 . 급식 영양·안전 지원역량 강화
W	맞춤형 영양성분 서비스 확대 W idening nutrition service	. 어린이 기호식품 데이터 수집·관리 기반 강화 . 수요자 중심 맞춤형 영양성분 정보 제공

전략1 안전한 식생활이 보장되는 환경

1-1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체계 정비

① 어린이 활동공간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(식)

- ‘식품안전보호구역’의 범위를 ‘학교주변’에서 ‘학원가’, ‘놀이공원’까지 확대하여 중점 관리
 - 확대된 보호구역 내 조리·판매 업소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전담관리원을 지정하여 관리 강화

현재	학교 주변 200m 내	▶	개선	현재 + 학원가, 놀이공원 추가
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- * ('25)학원·놀이시설 조사 → ('26) 법률 개정 → ('27, 목표) 800개 지역 신규지정
- 개학철, 가정의 날 등 기호식품 소비가 급증하는 기간에 맞춰 편의점·무인판매점 등 기획점검, 행정처분 이력 업체 집중 점검
 - * 소비 급증 기간 기획점검(연 4회), 행정처분 업체 집중점검(연 3회)
- 온라인 판매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배달앱(요기요, 쿠팡이츠 등), 온라인 플랫폼(쿠팡, 네이버쇼핑 등), 해외직구 식품 등 검사 확대('25~)
 - * 수거검사(건): ('25) 800 → ('26) 1,000 → ('27) 1,200
- 고·저식품 및 고카페인 식품을 매장 입구, 모퉁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진열하지 않는 캠페인 시범사업 추진('25~)

②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대상 확대(식)

√ 어린이 기호식품이란?

- ▶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(과자, 초콜릿, 빵 등 23종)
- 영양표시 등 의무, 고열량·저영양식품 판정 시 광고 제한 등 강화된 관리

○ 유행에 따라 소비가 급증하는 어린이기호식품을 ‘한시적 어린이 기호식품’으로 유연하게 지정·관리하는 체계 마련(‘25~)

- * ‘어린이 기호식품’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어, 새로운 유행식품이 생겨나는 경우 ‘식약처장이 고시로 정할 수 있는’ 근거 마련

○ ‘치킨, 떡볶이’ 등 어린이가 많이 섭취하는 식품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신규 지정하여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 등 지정·관리 강화

- * (‘25) 어린이 섭취량 많은 식품 조사 및 산업계 의견수렴·법령 개정

○ 고열량·저영양식품(고·저식품) 판정 기준 개선(‘25~)

- 열량, 지방, 당류의 함량이 기준보다 많은 경우 ‘고·저식품’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연구 용역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

- * ‘08년 마련된 ‘고·저식품 기준’의 적정성 재검토

③ 건강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·판매 활성화(식)

○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확대(‘26~)

- 우수판매업소 기준에 충족되면 장소 관계없이 지정하고, 건강한 식품을 일반식품과 구획·구분 판매하는 업체도 지정

< 우수판매업소 지정기준 개선(안) >

구 분	현재	개선(안)
지정장소	식품안전보호구역 내	장소 무관
지정기준	섭취 주의 식품* 미판매 * 고·저식품, 고카페인 식품	▶ 선택 현재 + 건강한 식품* 구분 판매업소 * 과일·채소·우유 등 95%이상 함유식품 등

○ ‘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’ 제품 확대 및 판매 활성화(‘26~)

- 안전·영양 우수한 제품을 국가가 ‘인증’하는 제도에서 업체 스스로 품질기준* 충족 시 ‘자율’ 표시하는 관리 체계**로 변경

* 품질기준: HACCP + 당류 미첨가 + 식이섬유·비타민 등 강화

** 자율표시(산업체) → 기준 충족 여부 사후 확인(식약처)

- 학교·공공기관 등 급식소에서 품질기준 충족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‘표준 지자체 조례(안)’을 마련·제공(‘26)

* (‘25) 자율표시 법률 근거 마련 → (‘26) 법률 개정 후 표준 조례 제공

○ 나트륨·당류 저감 식품의 개발부터 생산·판매까지 지원(‘25~)

- 나트륨·당류 저감 식품(예: 어육소시지, 두유, 시리얼 등)을 선정하여 생산 및 제품개발을 위한 정부 R&D, 판매 등 지원
- 개발된 당류·나트륨 저감식품을 ‘덜’, ‘감소’, ‘줄인’ 등으로 ‘강조 표시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(「나트륨·당류 저감표시 기준」 고시) 개정

<저감표시 대상 품목 확대 중장기 로드맵>

	‘21~‘24	‘25	‘26	‘27
나트륨	• 유탕면 • (삼각)김밥, 주먹밥 • 도시락, 햄버거, 샌드위치, 피자 • 즉석섭취식품 (국·탕, 찌개·전골) • 건면, 냉동밥, 만두 등	• 어육소시지 • 식육추출가공품 (국·탕, 찌개·전골)	• 식육가공품 등	• 빵류
당류	• 가공유, (농후)발효유 • 빵류(카스테라, 케이크 등) • 아이스크림, 빙과 • 액상커피, 유산균 음료	• 두유 • 초콜릿가공품	• 시리얼 등	• 음료 등

1 고열량·저영양식품 등 광고 제한 제도 개선(식)

- 유튜브, 쇼츠 포함 모든 ‘고·저식품’·‘고카페인 함유 식품’ 광고에 ‘소비자 주의사항’을 안내하는 시범 사업* 추진 등 체계 마련(‘25~)

- ▶ 고·저식품 주의사항(안): ‘과도한 섭취는 비만이나 영양불균형 유발’ 가능
- ▶ 고카페인식품(안): ‘어린이, 임산부,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 주의’

- 식품협회 가입업체 대상으로 ‘먹방’ 인플루언서 등 활용한 광고를 업체 스스로 자제하는 자율규범(회원사 협약 등) 협약 체결(‘25~)

* ‘식약처’-‘식품협회’협약 → ‘협회’-‘회원사’ 자율규범 서약 → 참여업체 홍보

- ‘고·저식품’ TV·IPTV 광고 제한 범위를 ‘어린이프로그램’에 한정(‘25~)

현 재	17~19시 모든프로그램	▶	개 선	17~19시 어린이프로그램*에 한정 * 만화·교육·어린이드라마 등
--------	---------------	---	--------	---

2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 확대(식)

- ‘영양성분 표시’ 의무 시행일(‘26.1)까지 모든 어린이기호식품 업체가 정상적으로 표시를 완료할 수 있게 안내·홍보(‘25~)

√ 매출액별 시행일: 120억 이상(‘22.1.1), 50~120억(‘24.1.1), **50억 미만(‘26.1.1)**

- 조리식품의 영양표시 ‘의무 품목’ 단계적 확대 추진(‘26~)

구 분	현재	개선(안)
의무품목 (조리식품)	제과, 제빵, 아이스크림, 햄버거, 피자	현재 + 치킨, 라면, 떡볶이, 꼬치류, 어묵, 튀김류, 만두류, 핫도그

○ ‘핫도그’, ‘만두’ 등 조리 식품의 ‘자율 영양 표시’ 대상 지원*

* 분석비용, 메뉴판 제작 비용, 영양성분 분석 오차 설정 방법 등

'08~'24	'25~
커피, 라면, 우동, 팝콘, 빙수, 탕후루 등	▶ 치킨, 떡볶이, 핫도그, 만두 등 분식

③ 어린이·청소년 주의 정보 제공(식)

○ 고카페인 과다 섭취 예방을 위한 주의문구 표시 확대('26~)

- 음료만 표시하는 고카페인 주의표시(민감자 섭취 주의)를 고카페인 함유 젤리 등 ‘고체 식품’에도 적용·확대('26~)

현재	음료 등 액체식품 ‘고카페인’ 표시	▶	개선	현재 + 고체 식품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	------------

○ 카페인 음료를 주로 소비하는 장소(편의점, 스터디 카페, 커피숍 등)를 선정하여 ‘카페인 섭취 자제 캠페인’ 전개 확대('25~)

현재	편의점 대상 캠페인	▶	개선	현재 + 스터디카페, 커피전문점
-----------	------------	---	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

○ 무당(제로슈가), ‘무가당’ 등 강조표시 주위에 감미료 함유, 총열량 등을 함께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('26~)

○ ‘타르 색소’ 사용 캔디류 등 식품에 ‘소비자 주의 정보’ 제공 추진('25)

* (EU) 타르색소 함유 제품에 ‘주의력에 영향을 미침’ 표시 의무 시행('10.7~)

1-3

식생활 개선 수준 정밀 진단 체계 마련

①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·수입 총 조사(식)

- 국내 생산·수입·유통되는 과자·초콜릿 등 가공식품의 생산·수입량, 조리 프랜차이즈 매출액, 학교주변 기호식품 트렌드 등 조사('25~)

√ 주요내용

- ▶ 기호식품 생산·유통·조리·판매 현황, 고·저식품 및 고카페인 식품 현황, 학교·학원·놀이시설 주변 등 어린이 생활공간의 식생활 환경 등 조사
- ▶ 조사 결과는 ①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 조정, ②고·저식품 지정 및 저감 지원 ③영양표시, ④식품안전보호구역 설정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정책에 활용

② 전국 지자체(228개) 식생활 안전 격차 진단 체계 개편(식)

- 전국 지자체의 식생활수준('식생활 안전지수')조사의 ①항목, ②주기, ③방법을 개편하여 지자체 평가 및 정책 진단 수단으로 활용('25~)

구분	현 재	개 선(안)
항목	총 29개 항목 * 안전(12), 영양(9), 인지·실천(8)	총 61개 항목 * 안전(12), 영양(9), 인지·실천(40)
주기	3년 1회	매년
방법	단편 진단 * 예) 단맛음료 1일 몇 번 섭취?	원인 진단 몇 번 섭취? 영양표시 제도를 아는지? 당류저감 제품을 아는지? 섭취를 줄이는 노력? 음료구매시 광고의 영향?

- 식생활 수준이 낮게 조사된 취약지역(농어촌 등)에는 어린이·학부모 심층 면담 후 필요한 교육, 정책 등 실질적 개선*을 위한 지원('26)

* 농식품 바우처 제공, 이동식 체험학습장(튼튼먹거리 차량) 활용 교육 등

전략2 성장 여건을 반영한 교육

2-1 발달 단계별 맞춤형 교육 제공

① 영·유아부터 시작하는 건강한 식습관 교육(식 교 해)

- ‘AI 푸드 스캐너’를 활용, 식사전·후를 스캔 후 섭취한 영양성분 분석하여 식생활 교육 및 학부모에게 부족·과잉 영양정보 제공(‘26)
* 예시) ‘아기 돼지 삼형제’가 과일·채소로 만든 건강한 집을 뮤지컬로 제작
- 농수산물을 활용한 체험용 밀키트 개발·보급 및 조리·섭취 체험
* (목표) 영유아 체험 인원수(명): (‘25) 7,000 → (‘26) 7,500 → (‘27) 8,000

② 초등학교 수업과 연계한 식생활 영양 교육 확대(식 교)

- ‘늘봄학교’와 연계한 ‘이동식 체험학습장’(튼튼먹거리 탐험대*) 확대
* 당·나트륨 줄이기, 영양표시, 식품안전 등 교육과 요리, 게임 활동
** (목표) (‘24 시범운영) 20개 학교 40차시 → (‘25~) 135개 학교 2,400차시
- 교과과정* 중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교재·교구 제작·보급(‘25~)
* (수학) 음식 내 나트륨 함량 계산, (국어) 나트륨·당류 저감 낱말 퀴즈 등

③ 중학·고교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·과목 개발 및 내실화(식 교)

- ‘식농(食農)체험 농촌·진로교육’, ‘당류 섭취 줄이기 프로그램’ 등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(‘25~)
- ‘식품·영양·보건·가정 등’ 진로에 필요한 고교교과서(식품안전과건강*) 출판 및 해당 교사를 위한 직무연수 과정 운영(‘25~)
* 내용: 안전식품선택(식품·첨가물 표시), 건강안전식사(당·나트륨 줄이기) 등

① 경제 취약계층 식생활 교육 및 지원 확대(북 동)

- 저소득 가정 영유아 대상, 영양상담, 영양식품* 제공 등 영양플러스 사업 추진 및 식생활 가이드, 온라인 영양교육 프로그램 확산

* 중위소득 80%이하 가구 영유아에게 분유, 달걀, 감자, 우유, 수산물 등 제공

** 온라인 교육 활용률(%): ('24) 86 → ('25) 88 → ('26) 90 → ('27) 92

- 경제 취약계층에게 신선 농식품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과 연계 건강한 저염·저당 식품 선택 등 식생활 교육 추진

② 다문화 어린이의 식생활 이해력 제고(식 교)

- 다문화가정 식생활 교육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 개발·보급('25~)

- 나트륨·당류 저감 교육자료, 식생활 우수교육자료를 다국어로 번역 배포* 및 나라별 음식 요리경연대회 개최

* 「삼삼한 밥상」 요리책자 등 ('25) 영어 → ('26) 중국어 → ('27) 베트남어

- 세계 식문화 이해 및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생 식생활 교육자료, 학교급식 식단 및 레시피 등 개발·보급('25~)

③ 비만·영양 불균형 어린이 대상 식생활 교육 내실화(식 북 교)

- 비만·성장부진·편식 등 문제 개선을 위해 학교 영양상담 강화 및 상담 프로그램·자료개발 지원 확대, 영양상담 선도교원 양성('25~)

-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 아동(초등1,2학년) 대상으로 비만 예방을 위한 '건강한 돌봄놀이터' 운영('25~)

* 놀이형 식생활 교육, 신체활동 프로그램 제공 및 비만도·건강습관 평가

- 나트륨·당류 등 영양성분 섭취수준 평가* 및 집중관리 식품군을 선정하여 올바른 저감 섭취 방법 홍보('25~)

* 6~18세 여자 어린이·청소년 당류 섭취권고량(WHO 기준 10%) 초과 → 집중 교육

① 흥미를 유발하는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 개발·운영(식 교)

- VR, AR, 메타버스, 보드게임 등 활용하여 어린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안전·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·지원('25)
- 마이나슈(나트륨·당류 저감) 로고송을 활용한 '어린이 연극프로그램', 댄스 챌린지(경연), 요리대회 등 개최('25)

②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(식 농 해)

- 농·어촌체험휴양마을, 관광농원 등 활용한 도·농교류 체험 및 텃밭 농촌체험과 미각 교육, 조리 실습 등 교육 프로그램 확산
 - * 우리 농산물 오감 체험, 계절별 텃밭-조리 실습 교육('23) 6만명 → ('27) 8만명)
- 단체급식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수산물 활용 레시피 개발·보급 및 '우리 수산물 DAY', 수산물 그림일기 공모전 개최
- 지역 농산물 축제 및 지역 공간을 활용한 식생활 교육 확대
 - 지역 내 농산물 직매장, 유희 공간(폐교, 빈집 등) 등을 활용하여 전통 음식 교육, 농장 체험 등 활동성 높은 교육 확대

③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즐기는 복합 문화공간 설치(식)

- 식생활 교육·전시·연구·체험 가능한 문화 공간(「가칭 국립 식생활 영양·안전 문화원」) 설치 근거 마련('25~)

- ▶ (교육) 영양성분이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과정, 영양성분의 에너지 전환 등
- ▶ (전시) 세계 먹거리, 우리나라 식품 역사 박물관, 인증 식품(품질인증, HACCP)
- ▶ (체험) 건강한 식재료로 만드는 빵, 김치, 치즈 등 체험
- ▶ (연구) 식생활 개선을 위한 조사, 연구, 국내·외 사례 등
- ▶ (기타) 여가 시설, 지역사회 경제

* 규모, 기능 등 문화공간 설계를 위한 정책 연구 추진

전략3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제공

3-1 AI 기반 어린이 급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

① 스마트 정보기술 활용 급식 안전관리(식)

- 소규모 급식소에 사물인터넷(IoT) 기반, 온도·세척농도 등 실시간 관리시스템* 도입으로 식재료 보관·조리·배식 쏙단계 안전관리 강화('27~)

* 온도(냉장고·조리), 세척 농도 등 센서 이용 점검 및 식재료 검수 등 관리



②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영양 관리(식)

- 식재료 정보, 조리법, 영양정보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연령별, 특수식 등 인공지능(AI) 기반 맞춤형 식단 제공('27)

* (연령별) 이유식·유아식, (특수식) 알레르기, 비만, 소아당뇨식

- 식재료 수급이 어려운 경우 보관 중 식재료 또는 지역 특산물 등으로 조리·제공할 수 있는 대체 식단을 AI가 추천('27)

③ 급식 관리 시스템 디지털 전환(식)

- 학부모 대상 급식의 영양·안전정보 제공 및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안전·영양정보 통합 서비스 제공('27)

* AI챗봇, 키즈앱 등 모바일 소통 방법으로 식단·조리법·식품안전 등 제공

- 어린이 급식관리 업무를 종이행정*에서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('27)

* 급식 규모, 위생점검 기록, 식단 검수일지, 영양관리 카드 등

① 식중독 발생 우려 식품 원인균 안전관리 강화(식 교)

- 살모넬라,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의 주요 오염원인 달걀, 굴 등 수거·검사* 강화를 통한 식중독 사고 발생 사전 차단('25~)

* 노계(80주령) 달걀, 최근식중독 발생 농장 달걀 및 유통 전 굴 수거·검사

- 어린이집·유치원·학교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식관계자 교육 및 개학철 대비 교육지원청·식약처·지자체 합동점검 등 지속 추진

- 오이·양상추 등 세척 시 노로바이러스 저감 기술* 개발·지원('25)

* 차아염소산나트륨·UV·가열살균 등 제어 방법 개발 및 매뉴얼 제작·배포

② 과학 기술 활용 식중독 사전 예측 관리(식)

- 식중독균* 특성정보 DB 수집, 살모넬라 신속진단키트** 개발

* ('24) 21,000주 → ('25) 23,000주 → ('26) 25,000주

** 식재료(달걀 등)를 즉시 검사할 수 있는 키트 조사·개발 검토('25~)

- 김치 원재료(비가열)의 소독 공정을 중요관리사항(CCP)으로 관리하여 대형 식중독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효과적 소독 방법 매뉴얼 전파

③ 식중독 역학·조사 대응 체계 내실화(식 교)

- 대형식중독(50인 이상) 대비 권역별 합동 역학·조사 대응체계 강화

- 이동형 검사차량 배치(6개권역), 국제·지역행사 식재료 사전 검사 및 식중독균 검사 지원, 식중독 발생 모의훈련 등

- 식중독 발생 시 원인 식재료가 납품된 급식소에 경보* 발령 강화

* (현재) 학교 영양사에게 발송 → (개선) 현재 + 교육부(NEIS)에 경보 알림 추가

① 급식 영양·안전 정책지원 체계 강화(식)

- 급식 실태조사, 국내·외 정보, 연구개발, 급식 센터 교육 등 역할 수행을 위한 식생활안전관리원 정책역량 강화('25~)

현재 ▲ 식단, 조리법 개발·보급 ▲ 위생·영양 교육자료 개발 ▲ 급식센터 직원 교육 ▲ 급식정보 제공	개선 현재 + ▲ 식생활 위생·안전·영양관리 정책수립 위한 조사 ▲ 급식관련 국외 정보 수집 ▲ 급식 센터 교육 등
--	---

- 영양 학회, 급식협회, 위탁급식 업체 등으로 구성된 '어린이 급식 안전·식생활 개선 정책 자문 협의체' 운영(연 4회)

* 관련 규정 개정, 현안 해결 자문, 업계 의견 등 청취

② 급식 전문가 양성 등 인적자원개발 강화(식)

- 영양사 경력(입문·심화·특별)단계별 집합교육 확대* 및 e-러닝·찾아가는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

* (목표) 교육 확대(연인원): ('24) 3,500 → ('25) 4,000 → ('26) 4,200

- 비만·알레르기 등 어린이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'전문가양성 교육 과정*(3년간 이수)'을 도입하여 질환 등에 특화된 상담 서비스 제공

* 기수당 60명 선발 → 질환 등 종류를 연차적 이해하고 영양상담 방법 학습

- 전문센터 운영으로 지역특화사업 등 급식안전지원 우수사례 확산

* 분야별(위생·영양·식생활교육) 표준모델 마련 → 교육·현장적용 → 확산

③ 소규모 급식제공시설 등 식생활 안전 지원 체계 마련(식)

- 영어학원 등 급식제공시설의 규모·주기 등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 마련

* 대·소규모, 상시·간헐적 급식에 맞는 위생안전기준 제시

- '식품진흥기금'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 급식시설 등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곳에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전략4

맞춤형 영양성분 서비스 확대

4-1

어린이 기호식품 데이터 수집·관리 기반 강화

① 영양성분 데이터 자동 수집(식)

- 어린이 기호식품 국내 생산 정보(품목 보고 의무제출)에 영양성분 수집을 제도화하여 자동 수집하는 체계 마련('25)

* 품목제조보고 시스템과 영양성분 DB와 연계 자동 수집(~'25)

- 기존 유통 식품 정보는 QR정보(영양정보 수록)로 수집하거나, 유통 중 가공식품의 단계적 조사 등을 통해 수집·확충

✓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(Food Quick Response)

- ▶ 식품의 영양성분 등 표시사항, 회수 정보 등 실시간 제공 시스템

* 휴대폰 카메라로 QR 스캔 → 영양성분 등 표시사항, 조리법, 안전정보 확인

- '데이터 마이닝*' 기술을 이용한 수입식품 영양성분 정보 수집('25~)

* 수입식품 표시(그림 파일)를 '텍스트' 형태로 자동 변환하는 기술

- 조리식품 '영양표시 의무 프랜차이즈업체(64개)' 및 '자율영양표시 음식점(약 1만개)'이 제공하는 영양성분을 DB에 입력(~'27)

② AI 기반 영양성분 데이터 예측·생산(식)

- 기존 확보된 영양성분 DB(13만개)를 머신러닝·딥러닝 등 AI 기술(유사식품 비교)을 활용하여 영양성분 함량 예측·생산('27)

-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자 및 조리·판매업자가 생산 배합비율, 조리 레시피 입력시 영양성분을 모두 산출해 주는 시스템 개발

③ 영양성분 데이터 품질 검증(식)

- 수집·생산 영양성분의 품질 보증을 위해 결함요인(누락, 오류 등)을 AI기반으로 찾고 실험분석 등으로 재검증·수정하여 신뢰 확보('25~)

* ('25) 검증원칙 및 시스템 개발 → ('26) AI진단 및 분석 재검증 후 수정

① 영양성분 빅데이터 민간 개방 활용성 강화(식)

- 실시간으로 값이 변경되는 데이터를 공공·민간 등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 API 형태*로 표준화 제공('25~)

*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부여(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)

- 영양성분 DB의 민간사용 확대를 위해 산업체와 협력과제를 발굴하여 연계 방안, 컨설팅, 활용 가이드 등* 지원('25~)

* 단체급식 식단구성, 영양표시, APP·알고리즘 개발자 등 맞춤형 가이드 제공

- 국민·산업계·학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빅데이터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온·오프라인 홍보 확대('25~)

② 데이터 베이스 활용가능 플랫폼 구축 확대(식)

-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 수집된 급식식단 정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급식 레시피(식재료·조리방법·영양정보 등 수록) 플랫폼 구축('25~)

* ('25) 플랫폼 설계 ISP → ('26) ISP 및 플랫폼 구축 → ('27) 서비스

- 어린이 섭취 음식(아침·점심·저녁·간식)을 분석해 영양 과잉·부족 상태를 시각적으로 제공하고,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하는 플랫폼 구축

* 온종일 섭취 음식의 과잉·부족은 '한국인 영양섭취 기준 정보'와 비교

- 섭취 음식, 건강식품, 의약품 섭취 데이터 지속 조사하여 섭취한 영양성분과 건강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정밀영양 플랫폼 구축

* '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(복지부 등)' 참여자(100만명) 중 1만명

VI

추진일정

추진과제	소관부처	추진일정
[전략 1] 안전한 식생활이 보장되는 환경		
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체계 정비		
○ 어린이 활동공간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	식약처	'25~
○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대상 확대	식약처	'25~
○ 건강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·판매 활성화	식약처	'25~
② 어린이 맞춤형 식생활 정보 제공 확대		
○ 고열량·저영양식품 등 광고 제한 제도 개선	식약처	'25~
○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 확대	식약처	'25~
○ 어린이·청소년 주의 정보 제공	식약처	'26~
③ 식생활 개선 수준 정밀 진단 체계 마련		
○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·수입 총 조사	식약처	'25~
○ 전국 지자체 식생활 안전 격차 진단 체계 개편	식약처	'25~
[전략 2] 성장 여건을 반영한 교육		
① 발달 단계별 맞춤형 교육 제공		
○ 영·유아부터 시작하는 건강한 식습관 교육	식약처, 교육부, 해수부	'25~
○ 초등학교 수업과 연계한 식생활 영양 교육 확대	식약처, 교육부	'25~
○ 중·고등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·과목 개발 및 내실화	식약처, 교육부	계속
② 영양취약계층 식생활 프로그램 확대		
○ 경제 취약계층 식생활 교육 및 지원 확대	복지부, 농림부	계속
○ 다문화 어린이의 식생활 이해력 제고	식약처, 교육부	'25~
○ 비만·영양 불균형 어린이 대상 식생활 교육 내실화	식약처, 복지부, 교육부	계속

③ 흥미를 더한 식생활 체험 활동 지원

○ 흥미를 유발하는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 개발·운영	식약처, 교육부	'25~
○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	식약처, 농림부, 해수부	'25~
○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즐기는 복합 문화공간 설치	식약처	'25~

[전략 3]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제공

① AI 기반 어린이 급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

○ 스마트 정보기술 활용 급식 안전관리	식약처	'27~
○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영양 관리	식약처	'27~
○ 급식 관리 시스템 디지털 전환	식약처	'27~

② 식중독 등 급식사고 예방 및 확산 방지

○ 식중독 발생 우려 식품 안전관리 강화	식약처, 교육부	'25~
○ 과학 기술 활용 식중독 사전 예측 관리	식약처, 교육부	'25~
○ 식중독 역학·조사 대응 체계 내실화	식약처, 교육부	계속

③ 급식 영양·안전 지원역량 강화

○ 급식 영양·안전 정책지원 체계 강화	식약처	'25~
○ 급식 전문가 양성 등 인적자원개발 강화	식약처	'25~
○ 소규모 급식제공시설 등 식생활 안전 지원 체계 마련	식약처	'26~

[전략 4] 맞춤형 영양성분 서비스 확대

① 어린이 기호식품 데이터 수집·관리 기반 강화

○ 영양성분 데이터 자동 수집	식약처	'25~
○ AI 기반 영양성분 데이터 예측·생산	식약처	'27~
○ 영양성분 데이터 품질 검증	식약처	'25~

② 수요자 중심 맞춤형 영양성분 정보 제공

○ 영양성분 빅데이터 민간 개방 활용성 강화	식약처	'25~
○ 데이터 베이스 활용가능 플랫폼 구축 확대	식약처	'25~